



오지윤 초등학교 4학년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날씨 ☀️

BREAKING NEWS

<한국일보>

프랑스 40도 이르는 기록적 폭염에... “에펠탑 20cm 휘어진다”

입력 2025-07-01 16:02 수정 2025-07-01 16:39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때 이른 불볕더위가 닥친 가운데,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에펠탑이 폭염의 열기로 20cm가량 휘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랑스 르파리지앵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에 폭염으로 인한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에펠탑은 열에 매우 민감한 철강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최대 10~20cm에 이르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역사가이자 건축가인 베르트랑 르무안은 “태양에 노출된 한쪽 면이 팽창하면, 그늘에 있는 다른 쪽은 수축하게 된다”며 “태양에 노출된 부분이 더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탑이 휘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열팽창 현상’이다. 일정한 압력하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드는 원리다.

다만 이 때문에 에펠탑이 손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르무안은 “(에펠탑 변형은) 사람이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미묘한 변화”라며 “밤이 되면 구조물은 다시 유연해져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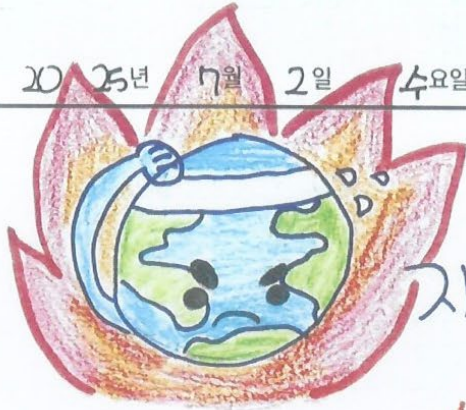
프랑스는 1일 대다수 지역이 40도 이상 기온을 기록하는 등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6개 권역 중 84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노동부는 기업에 직원 보호를 당부하면서 스키야 시간대 고강도 노동 중단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휴교에 들어간다. 파리경찰청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열돔 폭염’으로 알려진 이번 무더위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남유럽 전역을 덮쳤다. ‘열돔’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려 기대한 돔 형태를 형성하고, 지면에 열을 가두는 현상을 일컫는다. 스페인에선 지난달 28일 오후 안달루시아 지방의 우엘바 기온이 46.2도까지 치솟아 60년 만에 6월 신기록을 경신했다. 프랑스 기상청은 2100년까지 기온 40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2025년 7월 2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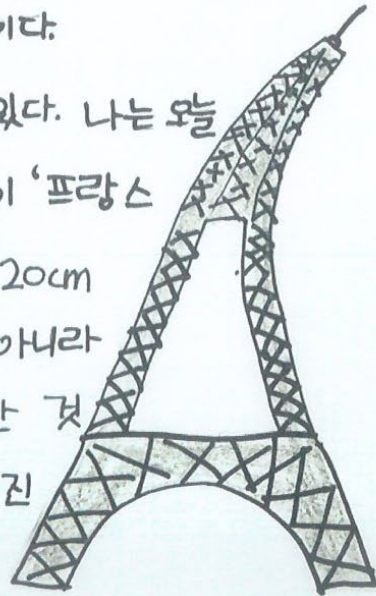
날씨 ☀



지구야, 괜찮니?

내가 사는 제주도에 **폭염경보**가 떴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나와 열이 나를 눌러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웠다. 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번주 내내 재난 안내문자로 **폭염경보** 알림을 받고 있다. **폭염경보**는 일체감온도가 35도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더운 날씨가 빨리 시작됐고 계속 더 더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전국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나는 오늘 흥미로운 연합뉴스를 봤다. 기사의 제목이 '프랑스 40도 이르는 기록적 **폭염**에...' '에펠탑 20cm 휘어진다'였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폭염으로 파리의 에펠탑이 휘어진다니!'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 순위가 프랑스 파리고, 그 곳에 가서 에펠탑을 보는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날씨 ☀️

것인데 몇 년후 휘어진 에펠탑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

이 모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정보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 같다.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은 온실 효과이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제일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첫째, 에어컨 냉방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고 최대한 사용횟수를 줄인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기코드를 뽑는다. 내가 좋아하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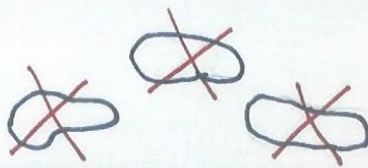
셋째,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겠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이다.



넷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겠다.

기후위기 극복에 진심인 나의 실천사항을 차근차근 지켜 나가겠다. 지구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탄소중립
제로





2025년 7월 8일 화요일

날씨  더움



수달, 다시 돌아왔수달!!

- 멸종위기 동물을 구해줘 -

수달



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야! 나를 구해줘! 으악!! 지금 안 구해주면 난... 이 세상에... 서... 없어질...

- 족제비과의 포유류
- 몸길이: 63 ~ 75
- 꼬리길이: 41 ~ 55 cm
- 몸무게: 5.8 ~ 10 kg
- 분포 지역: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우리 나라: 지리산, 섬진강, 거제도, 양양, 강릉, 부산)

< 천연기념물 제 330호 (1982) >

- 서식지: 강, 바다 등 물가, 바위 등, 굴
- 먹이: 물고기, 갑각류, 개구리, 설치류, 곤충 새, 새의 알

나는 학교 국어시간에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검색창에 '멸종위기 동물'을 쳤는데 엄청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니 너무 깜짝 놀라고 슬펐다. 나는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을 골랐다. 나는 이 귀여운 수달이 왜 멸종위기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구할 수 있는지 더 조사해보았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날씨 ☀️ 더움

<멸종되는 이유>

1. 도시화, 하천 정비, 습지 개발로 서식지 파괴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먹이 감소
3. 모피를 얻기 위한 불법 사냥과 무역
4.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수질 변화는 수달의 먹이 사슬과 생존에 위협



수달은 생태계 핵심종으로 그들의 멸종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겠다.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1. 하천 및 습지 등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파괴 방지
2. 먹이사슬 보호
3. 수달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보호해야 하는지 교육
4. 불법 포획 및 거래 금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수욕장이 많고 가까워 자주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비치코밍과 같은 바다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물을 아껴쓰기, 샴푸 및 세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등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수달아, 우리가 널 지켜줄게.
수달아, 꼭 다시 돌아와!”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날씨 ☀️ ☁️ ☁️ ☁️ ☁️

SAVE JEJU BADA



나는 오늘 우리가족과 함께 세이브제주바다 쓰쭈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세이브제주바다 (Save Jeju Bada)는 청정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바다 정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가 볼볼 내리서 생각보다 시원했다. 우리는 큰 포대를 받았는데 일반포대가 아니라 잘 찢어지지 않는 현수막을 재활용한 포대였다. Save JejuBada는 우리에게 쓰레기를 많이 줍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은지 알아보라고 하셨다.

내가 가장 처음으로 주운 쓰레기는 플라스틱 페트병과 스티로폼이다. 그리고 밧줄, 고물, 부표 등의 폐어구와 개천 유리병, 주사바늘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이 보여서 조금 놀랐다.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날씨 ☀️☁️☁️

내가 주운 쓰레기 중에 중국 쓰레기들을 보았을 때, '중국 참 나쁘다! 우리나라 바다를 더럽히다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대마도에 가면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이 발견 된다고 해서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흘러고 흘러 태평양으로 간다고 하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다.



요즘 비치리밍, 플로깅 등의 자연 정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직접 해보니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더운 여름이라 바다나 해수욕장을 많이 가시는데 가져간 쓰레기는 다시 꼭 갖고 와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깨끗한 바다나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함께 바다를 지켜줍시다.





오지윤 초등학교 4학년

2025년 8월 1일 금요일



jtbc news

극한 폭염, 소양호 녹조 비상...식수원인 "한강을 지켜라"

2025.07.31. 20:12 조승현 기자



[앵커]

기폭적인 뽕뽕더위가 이어지면서 북한강 최상류인 소양호가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소양호의 물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흘러가는데 문제는 없을지, 조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인제 소양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호수가 온통 초록빛입니다. 호숫가로 직접 내려가 봅니다. 물가를 따라 짙은 녹색 부유물이 가득합니다. 비릿한 악취도 진동합니다. 어민 배를 얻어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배를 잠시 멈춰봤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자체가 약간 녹색 빛을 띠고 있고요. 물속에 이런 초록색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이달 중순 큰비에 섞여 각종 오염물질이 호수로 흘러들었고, 폭염이 이어지며 수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자 물흐름이 정체되는 인제대교 일원에서 지난 주말부터 남조류가 급증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인 이 지역에서 올해로 3년째 녹조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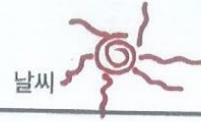
[심영인/강원 인제군 소양호 어민 : 물고기 일단 안 잡힙니다. 녹조 때문에, 일단 배 타고 다니면 냄새가 나고요.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다고, 녹조가 꼭 깔려서.] 현재 이곳의 남조류 개체 수는 밀리리터당 6000세포 정도입니다.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물이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등 관계 당국은 녹조가 하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선영/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관리부장 : 물순환 장치, 수면 포기기 등 물 환경 설비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또한 녹조 제거를 위한 녹조 제거선을 조기 투입하는 등...]

다행히도 녹조 발생 지점에서 58km 떨어진 소양강댐에서는 남조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상기후로 녹조가 갈수록 심해지는 소양호 상류를 지난해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용길 영상편집 박주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갔다. 지난주 내내 폭우가 내렸다는데 우리가 여행간 4일 동안은 폭염이 계속되서 땀을 닦아도 계속 흐르고 너무 더워서 걷기가 힘들었다. 우리 가족은 뷰가 좋다는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구경을 갔는데 강물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깜짝 놀랐다. 엄마께서 녹조현상 때문이라고 알려주셨다. 나는 뷰가 예쁘다고 해서 기대하며 갔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녹조가 같이 나와서 솔직히 실망했다. 그날 저녁, TV에서 소양호 녹조현상에 대한 뉴스를 들었는데 녹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소양호가 위치한 춘천은 지난 7월에만 총 17일의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다고 한다. 폭염이 녹조와 연관이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위협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래서 녹조현상과 녹조의 원인, 녹조예방을 위한 실천을 생각해 보았다.

녹조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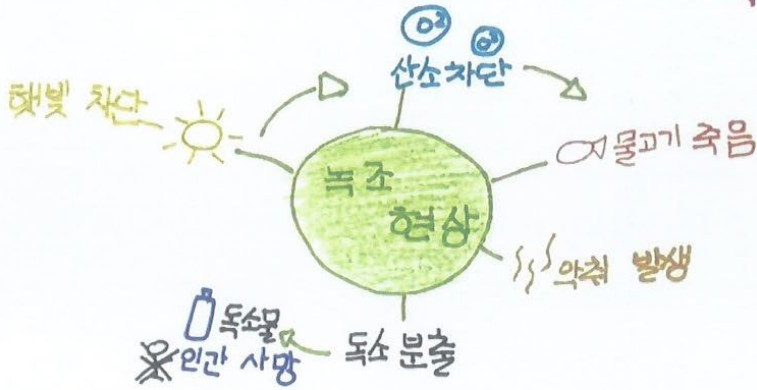
녹조현상?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 주로 바다보다는 강이나 호수, 하천에서 발생
주된 원인? 남조류. 남조류는 부영양화 (물에 인과 질소 등 영양분 과잉공급)되어 수질이 나쁜 호수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 독성물질 내뿜음





오지윤 초등학교 4학년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녹조 확산의 조건〉

- 1) 영양염류: 폭우로 휩쓸려온 비료 성분 등
- 2) 햇빛: 강한 햇빛에 의한 광합성
- 3) 수온: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녹조 예방방법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

- 1. 친환경 세제 사용
- 2. 설거지 전 기름기 제거
- 3.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음식물 분리수거 철저!
- 4. 농약과 비료 사용 줄이기
- 5. 물 낭비하지 않기, 샤워는 최대한 빨리!
- 6. 하천 주변 버려진 쓰레기 줍기

우리 모두 조금씩 녹조 예방을 위해 노력해서 우리의 물을 지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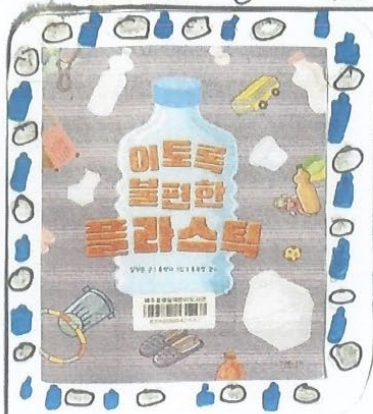




오지윤 초등학교 4학년

2025년 8 월 12 일 화요일

날씨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

< '이토록 불편한 플라스틱'을 읽고... >

나는 환경일기를 쓰다보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다. 나는 '이토록 불편한 플라스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내용이였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라스틱 없이 못 살겠다고 우리들은 말했지만 요즘은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한다.

이책에서 나에게 충적으로 다가왔던 GPPG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GPPG (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서태평양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면적에 약 15배라고 한다. GPPG는 세계 각국이 바다에 버린 못갓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흘러와 한데 모여 쓰레기장을 이루 곳이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날씨 ☀️

그런데 1994년에 처음 발견된 이 섬은 2018년도에 정식국가가 되었다. 나는 쓰레기섬이 국가가 된다고 하니 너무 깜짝 놀랐다. 이 쓰레기섬이 정식국가가 된 이유는 정식국가로 승인이 되면 유엔(UN)법에 따라 주변국이 청소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 이해가 되고 전세계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Plastic

나는 과학학원에서도 GPP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같이 고민해 보았다.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플라스틱 또는 종이를 잘 분리배출 한다.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제품을 대신 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해 종이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칫솔을 대신해 대나무 칫솔을 사용한다. 또 플라스틱 비닐봉지 말고 종이 가방을 사용하면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썬는 플라스틱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가진 특징을 유지하면서 잘 썬는 플라스틱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은 점은 쉽게 썬어 없어지고 땅에 묻어도 환경오염이 안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바이오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지윤 초등학교 4학년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날씨 ☀️


플라스틱 Zero 만들기


국가들의 노력


2016년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영국

200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나라예요.  유럽연합(Un)


2019년에 대형 마트와 슈퍼 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어요.  방글라데시

2022년 1월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 1킬로그램당 0.8유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부과해요.  말레이시아

2021년 일부 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한국

인도네시아 쓰레기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2018년부터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에서 비닐봉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어요.  인도네시아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같이 행동해서
 줄여야 하는 것 같다. 나도 물건을 살때는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고 물은 꼭 텀블러에 담고 다니는 실천을 계속 해야겠다.

~~BYE BYE~~~  ~~BYE B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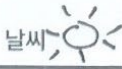
우리들의 손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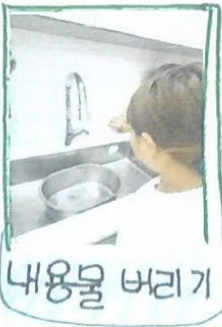
오지윤 초등학교 4학년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SMART 하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01



내용물 버리기

02



라벨 찌죽기

03



압착해죽기

04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기

따로 버리는 이유는?

1.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
2.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재탄생
3. 옷, 운동화 등의 섬유 수출

투명페트병 종류는?

1. 생수병
2. 음료수병

